

새천년을 맞이하는 자동차공학회지의 지향

한 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 우리 학회의 학회지도 21세기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학회지와 논문집으로 분리 발간되면서 회원제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고 그리고 학술 및 산업 기술 연구와 관련된 많은 논문 발표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학회 임원 및 편집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의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편집 담당 임원과 위원 여러분의 학회지 기획과 사무국의 적극적인 편집 업무,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학회지의 게재할 원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에는 학회지를 편집과 내용 면에서 각호마다 특집 주제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고 자동차용 가솔린엔진의 배출물 저감 기술, 안전, 궤도차량, 파워 트레인, 직접 분사식 엔진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기술 현황에 대한 기사를 편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논문집은 논문집의 편집 체제를 강화하고, 논문집의 지질 및 인쇄 방법도 새롭게 기획하여 편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영문 논문집을 발간하여 회원들의 연구 논문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구의 논문의 국제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창 식
부 회장

금년에는 FISITA 학술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므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문논문집이 발간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21세기의 자동차 기술은 세계 각국의 치열한 기술 경쟁과 제품의 고품질화를 지향하는 산업기술이 될 것이며 부단한 연구 개발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

동차 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학회의 학술지 또한 좀더 새롭고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정보, 기술동향, 자동차공학과 관련된 기술정보, 학술행사, 회원동정등 보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학회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문논문집의 발간에 대하여는 그 동안 편집 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의 투고가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논문집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임원을 비롯한 편집위원회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도에 발행되는 학회지 및 논문집이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회원 여러분의 사랑받는 학술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창식편집위원장: cslee@email.hanyang.ac.kr>